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행우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음주동기를 양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임상적인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언어보고 자료 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을 통해 음주동기의 내용을 파악한 뒤, Cox와 Klinger(1988, 1990)의 분류에 따라 음주동기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25개의 음주동기 측정 문항들을 227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이를 사각 회전의 방식으로 주축 요인 분석하여 고양, 대처, 동조, 사고 등 네 가지 음주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을 고려하여, 각 음주동기별로 4개씩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전체 16문항의 음주동기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음주동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주동기 요인들간의 상관으로 인해 나타난 요인 복잡성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또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신다. 또한 어떤 동기로 술을 마시는가에 따라 음주량이나 음주 패턴 그리고 음주하는 동안이나 음주 후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Cooper, 1994; Cooper 등, 1988, 1992b, 1995; Cutter와 O'Farrell, 1984; Farber 등, 1980; McCarty와 Kaye, 1984)에서 특정 음주동기가 음주량 및 음주 빈도 그리고 음주문제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음주문제에 대한 예언과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도 음주에 대한 심리적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Cooper 등(1992b)이 음주동기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전까지, 음주동기는 주로 음주상황들과

음주행동들에 대한 기능적 분석(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측정되었다. 그래서 Miller와 Rollnick(1991; Cooper, 1994에서 재인용)은 음주동기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주장하면서, AEQ(Brown 등, 1980) 같은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 척도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러 동기 이론들에서는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가 한 개인이 어떤 목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본다(Weiner, 1989; Cooper, 1995에서 재인용).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민규, 1993; 황인복 등, 1993; Aas 등, 1995; Brown 등, 1987; Cooper 등, 1988; Cooper 등, 1992a; Christiansen 등, 1989; Evans와 Dunn, 1995; Kushner

등, 1994; Nagoshi 등, 1994; Rohsenow, 1983; Smith 등, 1995; Southwick 등, 1981; Stacy 등, 1990)에서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에서의 개인차가 스스로 보고한 다양한 음주 패턴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음주 시작에서부터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음주 수준에서 기대 패턴이 음주행동을 성공적으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론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동기는 같은 것이 아니며,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는 음주동기가 음주행동에 더 근접해 있는 요인이다(Cooper, 1994). 최근에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동기보다 인과적으로 선행한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연구(Leigh, 1990)가 있었다. Leigh(1990)는 13개의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 목록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이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동기를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와 동기를 거의 일치되게 평정하였으나, 기대와 동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결같이 기대는 높고 동기는 낮은 형태로 평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알코올 효과에 대한 특유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음주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Cooper(1994)는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음주동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음주동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음주동기의 수나 특정 동기 차원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주동기의 수에 대해서 적게는 단일 차원의 음주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대여섯 개의 음주동기들을 주장한 연구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음주동

기를 평가할 때도 안면 타당도 면에서 보았을 때 동일 구성개념을 측정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이 서로 다른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연구도 있었고, 또한 똑같은 문항이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주동기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등 연구마다 일관성이 별로 없었다.

음주동기에 대한 연구들은 오랫동안 주로 두 가지 음주동기 즉, 부정적 정서를 회피(혹은 도피)하거나 조절하기 위한 '대처 동기(coping motive)'와 사교 및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교 동기(social motive)'에 초점을 맞추었다(Farbor 등, 1980).

그런데 사람들은 대처 동기와 사교 동기 이외에도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재미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즉, 기분의 고양을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한다. 실제로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에 관한 많은 연구들(Brown 등, 1980; Christiansen 등, 1982; Leigh, 1989; Rohsenow, 1983)에서, 사람들은 술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켜 주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주기도 한다고 널리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많은 수의 다양한 문항들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 연구들에서,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키기 위한 음주동기'와 아주 유사한 제3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Connors 등, 1987; Cutter와 O'Farrell, 1984; McCarty와 Kaye, 1984).

그래서 Cooper 등(1992b)은 이 제3의 음주동기 요인을 '고양 동기(enhancement motive)'라고 이름 붙이고, 대처 동기, 사교 동기 및 고양 동기라는 세 가지의 독특한 음주동기 차원들이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설정하고 음주동기 설문지(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이하 DMQ로 약함)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는데, 그 결과 고양 동기가 다른 음주동기들과 경험적으로 구분이 되며 또한 3요인 음주동기 모형의 자료에 대한 부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Stewart 등(1996)도 Cooper 등(1992b)이 만든 DMQ를 가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재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DMQ의 내재된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단일 차원의 음주동기 모형이나 2요인 음주동기 모형보다는 가정된 3요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Cox와 Klinger(1988, 1990)는 음주동기에 깔려있는 두 개의 차원 즉, 개인이 음주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들의 방향성(정적 강화인가 아니면 부정적 강화인가)과 원천(내적인가 아니면 외적인가)에 따라 음주동기들을 의미 있게 분류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방향성과 원천이라는 두 개의 차원에 의해 4개의 음주동기, (a) 내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의 동기(긍정적인 기분이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음주)-**고양 동기** (b) 외부에서 생성된 정적 강화의 동기(긍정적인 사회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음주)-**사교 동기** (c) 내부에서 생성된 부정적 강화의 동기(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기 위한 음주)-**대처 동기** (d) 외부에서 생성된 부정적 강화의 동기(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음주)-**동조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음주동기 분류는 Cooper(1992b)의 3요인 음주동기 모형에 '동조 동기(conformity motive)'를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찍이 Farbor 등(1980)도 동조 동기가 새로운 음주동기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들은 사교적 음주와 도피성 음주 이 두 차원이 같이 관련된 하위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교적 음주 차원을 a)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 줄이기 위한 음주(부정적 강화 과정을 반영함)와 b) 정적인 사회적 강화에 보다 일치하는 음주로 세분할 수 있는가를 그 예로 들었다. 이 예에서 바로 전자가 의미상 동조 동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주위의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민규, 1993; 한성열 등, 1997; Donovan과 Jessor, 1978)에서 동료의 음주 정도와 동료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음주행동(특히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예언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Cooper(1994)는 Cox와 Klinger(1988, 1990)의 음주동기 분류에 따라 4요인 음주동기 모형을 설정하고, 확증적 요인 분석을 통해 Cox와 Klinger(1988, 1990) 모형의 개념적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음주동기를 주요 변인으로 다룬 연구가 매우 드물었으며, 특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박영숙 등(199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또한 음주동기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영숙 등(1995)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이유 및 동기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 분석하여 두 개의 음주동기 요인 즉, 정서적 음주동기 요인과 사회적 응적 음주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두 요인들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타난 대처 동기와 사교 동기(동조 동기 포함)에 각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드시 부정적 정서 상태가 아닐 때에도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실제로 알코올 효과에 대한 기대의 연구나 정서 상태를 조작한 실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떤 연구에서도 고양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음주 상황이 집단적 음주 양태를 띠고 있고, 기분 고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로 음주에 내재되어 있는 음주동기를 세분하기보다는 단순히 걸로 드러난 모습에 따라 고양 동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

교 동기로 간주해 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술로 시작될 정도로 술자리가 잦고, 또 술 생각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은 문화적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동기는 별로 관심이 대상이 되지 못하였고, 주로 사교 동기에 포함되어 같이 측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가 둘 다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의 집단 음주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사교적 음주상황들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 언뜻 이 둘을 따로 분류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가 공유하는 음주상황의 속성 때문에 이 둘을 분류해내기가 쉽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자 하는 의지의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은 분명하게 다르다. 즉 사교 동기는 많은 적든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지만, 동조 동기는 자발적인 의지가 거의 없이 마지 못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음주동기를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임상적인 평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음주동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이를 양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음주동기의 측정을 위해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문화가 다르고 특히 음주의 관습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상황들이 외국과는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음주 상황이라도 음주의 의미나 동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척도를 제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언어보고 자료 분석(verbal protocol analysis)

을 통해 음주동기의 내용들을 파악한 뒤, Cox와 Klinger(1988, 1990)의 음주동기 분류가 음주동기들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분류해줄 수 있는 이론 틀이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분류와 정의에 따라 각각의 음주동기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

서울 시내에 있는 2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 288명을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얻은 자료 중 성실하지 못하게 응답한 7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34명으로 전체의 59%였으며, 여학생은 93명으로 41%를 차지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227명의 응답자 중 1학년은 69명, 2학년은 67명, 3학년은 56명 그리고 4학년은 35명이었다. 그리고 언어보고 자료는 사전에 별도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자 대학생 30명과 여자 대학생 30명으로부터 얻었다.

연구 절차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척도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술을 마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언어보고 자료를 얻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언어보고 자료는 각각 30명씩의 남녀 대학생에게 '사람들은 언제 술을 마십니까?'라는 질문을 주고 A4용지에 직접 서술하게 함으로써 얻었다. 이 언어보고 자료를 연구자와 대학원생 한 명이 각기 읽고, 음주의 이유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용은 유사하나 표현 방식이 다른 항목들은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분류가 애매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분류하였다. 이렇게 하여 전체 60명의 응답자들 중 10%(6명) 이

상이 응답한 항목만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언어보고 자료에서 추출한 음주의 이유 항목들을 기초로 음주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Cox와 Klinger (1988, 1990)가 분류한 음주동기들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음주동기 척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런데 언어보고 자료에서 얻은 음주이유 항목들이 대처, 사고 및 고양 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표현들로 추출되었지만, 동조 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직접 문항으로 작성하기에는 표현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언어보고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처, 사고 및 고양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29개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동조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Cooper(1994)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약간 수정하여 6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술을 마시는 이유의 내용이 담긴 상황들(예, 스트레스를 받을 때)로 표현하였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이 가리키는 상황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5점 척도(1-전혀 마시지 않는다, 5-거의 항상 마신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총 35개 문항을 가지고 12명의 대학원생에게 응답하게 하고, 문항들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토의를 거쳐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문항들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으며,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된 문항들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문항만 남기고 삭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예비연구에서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25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결 과

요인 분석

음주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25개 문항에 대해 227명이 응답한 자료를 가지고 주축 요인 분석을 하였다. 요인 수는 비회전 요인 분석에서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하여 Varimax 방식과 Direct Oblimin 방식을 사용하여 기초 요인 구조를 직각과 사각으로 회전시켜 보았다. 그 결과 회전 방식에 따라 개개 요인 적재값의 크기는 달라졌지만, 각각의 요인에 묶인 문항의 수나 문항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전 연구들에서 음주동기는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음주동기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다(interrelated)고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요인 회전 전의 자료 내 요인구조가 사각 구조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사각 회전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25개의 음주동기 측정 문항들을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하고 주축 요인 분석하여 사각 회전시킨 결과로 얻은 구조 계수 행렬(structure matrix)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구조 계수 행렬(표 1)에서 나타난 구조 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를 중심으로 각 요인과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제1요인에는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즐거운 일이 있어 기쁨을 만끽하고 싶을 때 등의 문항들이 묶였다. 이 문항들은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기 위한 동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제1요인을 '고양 동기' 요인으로 이름 붙였다. 제2요인에 묶인 문항들은 고민이 있을 때, 기분이 울적할 때, 슬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과 같이 주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줄이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제2요인을 '대처 동기' 요인으로 이름 붙였다. 제3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술 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술을 마시지 않으면 파도립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

각할 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등의 문항들로 주로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이나 거부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제3요인을 ‘동조 동기’ 요인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제4요인에는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모임에서 흥을

돋고 싶을 때,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등과 같이 주로 모임과 같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사회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제4요인을 ‘사교 동기’ 요인으로 이름 붙였다. 이상의 4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변산의 비율은 총 변산 중 51.8%였다.

표 1. 음주동기 문항의 구조 계수 행렬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h^2
19.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725	-.373			.549
2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722				.529
6.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655	-.484			.489
2. 즐거운 일이 있어 기쁨을 만끽하고 싶을 때	.583	-.352		-.363	.393
9.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517				.283
22. 이성 친구(애인)와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487			-.320	.280
11. 몹시 긴장이 될 때	.402	-.393			.263
16. 고민이 있을 때	.428	-.896			.812
23. 기분이 울적할 때	.303	-.891			.809
8. 슬플 때		-.850			.733
15. 스트레스를 받을 때	.441	-.829			.711
17. 화가 났을 때	.394	-.739			.558
4. 용기가 나지 않을 때	.362	-.560			.354
24.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755	-.312	.588
5.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734		.545
13.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675	-.422	.476
21. 술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645	-.502	.484
18. 술생각은 없었지만, 친구들(혹은 동료들)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560	-.458	.392
12.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315		.363	-.863	.753
20. 모임에서 흥을 돋고 싶을 때	.367		.393	-.831	.709
10.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324	-.782	.618
14.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588	-.686	.569
7.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378		.422	-.633	.461
3.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친구들(혹은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을 때	.405			-.551	.373
1. 술생각은 없었지만, 윗사람(선배 등)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329	-.414	.226
고 유 근	6.72	3.85	1.40	0.99	12.96
총 변산 비율 (%)	26.9	15.4	5.6	4.0	51.8

그런데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은 요인 복잡성을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요인인 '고양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7개의 문항 중 4개 문항은 제2요인인 '대처 동기' 요인에 그리고 2개 문항은 제4요인인 '사교 동기' 요인에도 .30 이상의 구조 계수를 보였다. 제2요인인 '대처 동기' 요인에 해당하는 6개의 문항 중 5개가 제1요인인 '고양 동기' 요인에도 .30 이상의 구조 계수를 보였다. 그리고 '동조 동기'(제3요인)에 해당하는 5개의 문항 중 4개 문항이 '사교 동기'(제4요인)에도 .30 이상의 구조 계수를 보였으며, 거꾸로 '사교 동기'(제4요인)에 해당하는 7개의 문항 중 6개가 '동조 동기'(제3요인)에도 .30 이상의 구조 계수를 보였다. 또한 '사교 동기'(제4요인)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은 제1요인인 '고양 동기' 요인에도 .30 이상의 구조 계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양 동기'와 '대처 동기', 그리고 '동조 동기'와 '사교 동기'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고양 동기'와 '사교 동기'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음주동기 요인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음주동기의 요인 상관 행렬

	고양	대처	동조	사교
고양 동기	1.000			
대처 동기	.427	1.000		
동조 동기	.149	.097	1.000	
사교 동기	.311	.167	.459	1.000

하지만 형태 계수 행렬(부록 1)을 통해 각 문항이 요인의 독자적인 측면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문항들은 다른 요인들보다는 구조 계수 행렬에서 묶인 요인과 가장 강한 관계가 있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 각 요인에 묶이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이 문항 작성 단계에서 연구자가 이론적인 틀에 의해 분류했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표 3). 그 결과 전체 25개의 문항

중 단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문항이 연구자가 사전에 분류한 대로 각 요인에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음주동기 요인들에 묶인 문항들의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item-total correlation) 그리고 동일 요인에 묶인 문항들의 문항 내용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각 음주동기별로 4개씩의 문항들을 선정하여 전체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음주동기 척도를 구성하였다(부록 2 참조). 최종 문항 선택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양 동기 요인의 경우에는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성이 낮은 두 개의 문항(11번, 22번 문항)과 문항-총점 상관성이 그 다음으로 낮은 2번 문항을 제외시켰다. 대처 동기 요인의 경우에는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성이 가장 낮은 4번 문항을 먼저 제외시켰으며, 16번 문항(고민이 있을 때)과 15번 문항(스트레스를 받을 때)은 두 문항간에 매우 높은 상관($r = .792$)을 보이면서 평균과 표준편차가 유사하고 또 같은 요인에 있는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 측정 문항으로 판단하여 두 문항 중 한 문항(16번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동조 동기의 경우에는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성이 가장 낮은 18번 문항을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사교 동기의 경우에는 구조 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두 개의 문항(1번, 3번 문항)이 구조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성이 가장 낮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가정했던 것과는 다른 동기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나 먼저 제외시켰다. 그리고 가장 높은 구조 계수와 문항-총점 상관을 보인 두 개의 문항(12번, 20번 문항)이 매우 높은 상관($r = .786$)을 보이면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 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 측정 문항으로 판단하여 한 문항(20번 문항)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개의 문항을 선택하였다.

표 3. 음주동기 문항의 문항-총점 상관

문	항	문항-총점 상관
고양동기 요인		
19.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6503
2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6119
6.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5798
2.	즐거운 일이 있어 기쁨을 만끽하고 싶을 때	.4698
9.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5165
22.	이성 친구(애인)와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4352
11.	몹시 긴장이 될 때 a	.3641
대처동기 요인		
16.	고민이 있을 때	.8617
23.	기분이 울적할 때	.8446
8.	슬플 때	.8024
15.	스트레스를 받을 때	.7948
17.	화가 났을 때	.6884
4.	용기가 나지 않을 때	.5112
동조동기 요인		
24.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뜰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6476
5.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6296
13.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5888
21.	술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5890
18.	술생각은 없었지만, 친구들(혹은 동료들)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4786
사교동기 요인		
12.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7730
20.	모임에서 흥을 돋고 싶을 때	.7372
10.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7131
14.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6786
7.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6405
3.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친구들(혹은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을 때 b	.5300
1.	술생각은 없었지만, 뒤통(선배 등)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c	.3693

a: 원래 대처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이었음.

b: 원래 고양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이었음.

c: 원래 동조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문항이었음.

내적 합치도

음주동기 각각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 α)를 구하였다(표 4). 내적 합치도는 음주동기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였는데, 고양 동기는 α 가 .76으로 다른 음주동기 척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는 각각 .89, .80, .85로 나타났다.

표 4. 음주동기 척도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 계수)

척도	문항수	전체 (N=227)	남자 (N=134)	여자 (N=93)
고양 동기	4	.76	.77	.76
대처 동기	4	.89	.87	.91
동조 동기	4	.80	.82	.74
사교 동기	4	.85	.86	.81

성별에 따른 음주동기 척도 점수의 차이

각각의 음주동기 척도 점수에서 남녀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별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MV $F = 6.89, p < .001$). 이는 음주동기들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떤 음주동기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F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표 5), 대처 동기와 동조 동기 그리고 사교 동기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조 동기와 사교 동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처 동기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음주동기 척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고양 동기	대처 동기	동조 동기	사교 동기
남자	2.23(.82)	2.24(.91)	2.81(.87)	3.64(.71)
여자	2.18(.77)	2.68(1.16)	2.56(.69)	3.33(.64)
F	.23	10.04**	5.09*	12.03**
η^2	.001	.043	.022	.051

** $p < .01$, * $p < .05$.

논 의

본 예비연구의 주된 목적은 음주동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또 이를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보고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기초로, Cox와 Klinger (1988, 1990)가 사람들이 음주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의 '방향성'과 '원천'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조합에 의해 분류한 네 가지 음주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총 227명의 대학생 자료를 가지고 주축 요인 분석을 하였는데, 비회전 요인 분석에서 고유값이 1.0 이상인 4개의 요인으로 요인 수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음주동기들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음주동기들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다고 이전 연구들(Cooper, 1994; Cooper 등, 1992b)에서 일관성 있게 지적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 회전을 시키기 전에 자료 내 요인들간의 구조가 직각 구조인지 사각 구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요인 행렬을 사용해서 2차원 공간상에 변수들을 점찍기 해보고 또 직각 회전을 해서 얻은 최종 요인 행렬에서 각 요인의 대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하나의 요인 내에 들어 있는 변수들과 다른 요인 내에 들어 있는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평균인 문항간 상관평균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요인 1과 요인 3 사이에는 $r = .30$, 요인 2와 요인 3 사이에는 $r = .25$ 그리고 요인 2와 요인 4 사이에는 $r = .33$ 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료 내 요인들간의 구조가 직각 구조라기 보다는 사각 구조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회전 방식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 요인 구조를 직각과 사각으로 모두 회전시켜 보았다. 그 결과 요인 구조의 회전 방식에 따라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직각 회전을 시켰을 때나 사각 회전을 시켰을 때나 각 요인에 묶인 문항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개의 요인(사고 동기와 동조 동기 요인)에서는 요인 내에 묶이는 문항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인 내 문항의 중요성 순서도 동일하였고, 대처 동기와 고양 동기 요인에서는 요인 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문항이 그 순서만 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요인에 묶이는 문항의 구성 내용이 직각 회전을 시키든 사각 회전을 시키든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척도 제작 과정에서는 요인 구조의 회전방식으로 직각 회전이나 사각 회전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척도의 문항 구성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각 회전을 시켰을 때와 사각 회전을 시켰을 때의 차이점은 추출된 요인의 순서와 각 요인의 설명량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 요인 구조를 회전시키는 방식에 따라 요인간 관계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직각 회전의 방식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요인들 간의 관계가 사각 회전의 방식을 통해서서는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현실 반영의 측면에서도 사각 회전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주축 요인 분석하여 사각 회전시킨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음주동기 요인 즉, 고양, 대처, 동조 그리고 사고동기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런데 분석 결과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은 높은 요인 복합성을 보였다. 즉 전체 25개의 문항 중 단 하나의 요인에만 .30 이상의 높은 구조 계수를 보인 문항들은 단지 4개에 불과했으며, 변수의 복합성이 2인 문항들이 17개 그리고 변수의 복합성이 3인 문항들이 4개였다. 이와 같은 요인 복합성은 요인간의 상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형태 계수 행렬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 계수 행렬에서 요인 1에 가

장 높은 구조 계수를 보인 문항이 요인 2에도 어느 정도 높은 구조 계수를 가지는 요인 복합성을 보이는 경우, 만일 요인 2의 효과를 통제하고 나면 요인 2와 그 문항간의 관계는 아주 미미해진다 것을 형태 계수 행렬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주동기들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며, 또한 요인 구조 회전시 사각 회전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음주동기 요인들 간의 상관으로 인해 나타난 요인 복합성은 음주동기 요인 수의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인 음주동기 요인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음주동기의 측정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과연 몇 개의 음주동기 요인이 음주동기를 가장 간명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 음주동기 척도를 다른 표집에 실시해 보고, 척도를 제작할 때 가정했던 4요인 음주동기 모형과 보다 적은 수의 음주동기 요인으로 이루어진 여러 대안적인 모형들의 측정 모형 적합도를 비교·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기존 연구들(Cooper, 1994; Cooper 등, 1992b)에서 음주동기 세분의 유용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음주동기 세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예비적으로 우선 Cox와 Klinger(1988, 1990)의 분류 틀에 따라 음주동기 척도를 제작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네 가지 음주동기 하위 척도에서 .76에서 .89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Cooper(1994)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고양 동기의 경우에는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세 가지 음주동기에서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성별로 따로 내적 합치도를 산출했을 때도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동조 동기 척도에서만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의 경우 동조 동기 척도의 내적 합치도가 .74로 남자(.82)에 비해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음주동기의 요인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동조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남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각각의 음주동기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효과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 동기와 동조 동기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술을 사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남자들이 음주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더 취약한 일반적인 현상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대처 동기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이었고 특히 여자의 경우 대학 시절이 비교적 음주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동기의 성차를 일반 성인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동기 척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척도 개발에서 중요한 측면인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또한 음주동기 척도 제작에 있어 대학생 표집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생 집단이 전체 성인 인구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본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 일반 성인 집단의 음주동기 요인 구조가 대학생 집단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성인 집단을 연구에 포함시킨 보다 광범위한 척도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음주동기 척도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음주동기 척도를 자체 제작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음주동기 척도를 가지고 음주동기와 음주문제 정도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를 통해 특정의 음주동기가 특정의 음주문제들을 보다 더 잘 예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본 음주동기 척도가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장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들을 통해 본 음주동기 척도가 수정·보완을 거쳐 보다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박영숙 · 표미자 · 김정선 (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의대지*, 18(4), 399-409.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한성열 · 신행우 · 최일호 (1997). 대학생의 음주행동과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27, 31-57.
- 황인복 · 이민규 · 주경채 (1993). 알코올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32(6), 962-970.
- Aas, H., Klepp, K. -I., Laberg, J. C., & Aaro, L. E. (1995). Predicting adolescents' intentions to drink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293-299.
- Brown, S. A., Creamer, V. A., & Stetson, B. A. (1987). Adolescent alcohol expectancies in relation to personal and parental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117-121.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80). Expectation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419-426.
- Christiansen, B. A., Goldman, M. S., & Inn, A. (1982). Development of alcohol-related expectancies in adolescents: Separating pharmacological from social-learning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336-344.
- Christiansen, B. A., Smith, G. T., Roehling, P. V., & Goldman, M. S.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93-99.
- Connors, G. J., O'Farrell, T. J., Cutter, H. S. G., & Thompson, D. L. (1987). Dose-related effects of alcohol among male alcoholics, problem drinkers and nonproblem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461-466.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Cooper, M. L., Frone, M. R., Russell, M., & Mudar, P. (1995). Drinking to regulat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990-1005.
- Cooper, M. L., Russell, M., & George, W. H. (1988).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218-230.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 M. R., & Mudar, P. (1992a).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 Windle, M. (1992b).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hree-dimensional measure of drinking motives. *Psychological Assessment*, 4, 123-132.
- Cox, M., & K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ox, M., & K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M. Cox (Ed.), *Why people drink* (pp. 291-311). New York: Gardner Press.
- Cutter, H. S. G., & O'Farrell, T. J. (1984). Relationships between reasons for drinking and customary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5, 321-325.
- Donovan, J. E., & Jessor, R. (1978). Adolescent problem drinking: Psychosocial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9, 1506-1524.
- Evans, D. M., & Dunn, N. J.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efficacy judgm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6, 186-193.
- Farbor, P. D., Khavari, K. A., Douglass, F. M.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reasons for drinking: Empirical validation of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dimens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780-781.
- Kushner, M. G., Sher, K. J., Wood, M. D., & Wood, P. K. (1994). Anxiety and drinking behavior: Moderating effects of tension-reduction alcohol outcome expectanc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8, 852-860.
- Leigh, B. C. (1989). In search of seven dwarves: Issues of measurement and meaning in alcohol expectancy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5, 361-373.
- Leigh, B. C. (1990). Alcohol expectancies and reasons for drinking: Comments from a study of sexualit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4, 91-96.
- McCarty, D., & Kaye, M. (1984). Reasons for drinking: Motivational pattern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ve Behaviors*, 9, 185-188.
- Nagoshi, C. T., Nakata, T., Sasano, K., & Wood, M. K. (1994). Alcohol norms, expectancies, and reasons for drinking and alcohol use in a U.S. versus a Japanese college sampl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8, 671-678.
- Rohsenow, D. J. (1983). Drinking habits and expectancies about alcohol's effects for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752-756.
- Smith, G. T., Goldman, M. S., Greenbaum, P. E., & Christiansen, B. A. (1995). Expectancy for social facilitation from drinking: The divergent paths of high-expectancy and low-expectancy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32-40.
- Southwick, L. L., Steele, C. M., Marlatt, G. A., & Lindell, M. (1981). Alcohol-related expectancies: Defined by phase of intoxication and drinking experi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13-721.
- Stacy, A. W., Widaman, K. F., & Marlatt, G. A.

- (1990). Expectancy models of alcohol 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18-928.
- Stewart, S. H., Zeitlin, S. B., & Samoluk, S. B. (1996). Examination of a three-dimensional drinking motives Questionnaire in a young adult university student samp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4, 61-71.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ing Drinking Motives Scale

Haeng-Woo Shin and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re has been few research attempting to measure drinking motives quantitatively in Korea. Developing a reliable scale measuring drinking motives will be very useful for future research as well as clinical assessment. In the present study, after verbal protocol analysis, a questionnaire (25 items) for measuring drinking motives was developed based on Cox and Klinger's(1988, 1990) 4 categories of motives. Responses from 227 university students were factor-analyzed using principal-axis(PAF) extraction procedure, followed by oblique rotation. Four factors with eigenvalues of great than 1 were finally extracted. Analysis of the item content of the factors indicated dimensions tapping enhancement, coping, conformity, and social motive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factor loadings and item-total correlations, four items on each of the intended dimensions were retained (total 16 items). Cronbach alpha coefficients of each subscale ranged from .76 to .89, which showed satisfactory internal consistency.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subscales of drinking motives, but these effects were generally small in magnitude.

〈부록 1〉 음주동기 문항의 형태 계수 행렬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2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711	.017	-.067	-.091
19.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683	-.073	.152	.039
6.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542	-.252	-.107	-.066
2.	즐거운 일이 있어 기쁨을 만끽하고 싶을 때	.472	-.119	-.076	-.232
9.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468	-.031	.064	-.084
22.	이성 친구(애인)와 더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407	-.052	.108	-.135
11.	몹시 긴장이 될 때	.287	-.266	.230	.108
23.	기분이 울적할 때	-.081	-.935	-.092	.004
8.	슬플 때	-.121	-.896	-.020	-.045
16.	고민이 있을 때	.077	-.877	-.038	.058
15.	스트레스를 받을 때	.130	-.789	-.099	.036
17.	화가 났을 때	.116	-.701	.007	.073
4.	용기가 나지 않을 때	.113	-.489	.094	-.083
24.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21	.127	.777	.061
5.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018	.009	.774	.092
13.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 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076	-.015	.610	-.163
21.	술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126	.088	.527	-.235
18.	술생각은 없었지만, 친구들(혹은 동료들)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179	-.130	.441	-.289
12.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079	.066	-.041	-.869
10.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065	.053	-.044	-.791
20.	모임에서 흥을 돋고 싶을 때	.157	.087	.016	-.789
14.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078	.009	.345	-.504
7.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176	-.056	.163	-.494
3.	특별한 일이나 사건을 친구들(혹은 동료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을 때	.215	-.105	-.020	-.475
1.	술생각은 없었지만, 윗사람(선배 등)이 술을 마시자고 할 때	-.191	-.120	.175	-.373

〈부록 2〉 음주동기 측정 질문지(16문항)

※ 다음에 제시되는 상황들을 하나 하나 떠올려 보시고,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은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십시오.

	전혀 마시지 않는다	거의 마시지 않는다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거의 항상 마신다
1.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
2.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기분전환을 하고 싶을 때	1	2	3	4	5
3. 사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을 때	1	2	3	4	5
4. 슬플 때	1	2	3	4	5
5. 모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6.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마시는 친구들의 그룹에 끼고 싶을 때	1	2	3	4	5
7. 사람들과 좀 더 잘 어울리고 싶을 때	1	2	3	4	5
8. 스트레스를 받을 때	1	2	3	4	5
9. 모임을 더 즐겁게 만들고 싶을 때	1	2	3	4	5
10. 세상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1. 화가 났을 때	1	2	3	4	5
12. 생활의 활력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3. 술생각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감(혹은 인정)을 얻고 싶을 때	1	2	3	4	5
14. 기분이 울적할 때	1	2	3	4	5
15. 시원하거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1	2	3	4	5
16. 술생각은 없었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1	2	3	4	5